

“올바른 역사 알고 진실 알려야”

광복 81주년 맞아 대마도 역사 탐방
전건협 전북도회 회원 25명이 찾아

광복 81주년을 맞아 대마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 역사의 흔적을 직접 확인하는 제25차 대마도 역사 탐방이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2박 3일간 진행됐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임근홍)가 주최하고 (사)한국생활법률문화연구원(이사장 이형구)이 주관한 이번 탐방에는 협회 회원 등 25명이 참여했다.

특히 올해 행사는 기존 1박2일 일정에서 2박3일로 확대해 관광 중심의 방문에서 벗어나 대마도 곳곳에 남아 있는 우리 역사와 관련된 유적을 직접 찾아가는 일정으로 마련돼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탐방단은 현지 관광코스에서는 쉽게 접하기 어려운 박제상 순국비를 비롯해 왕인박사 현창비, 접반사 수난지비, 통신사 황윤길 현창비 등을 차례로 찾아 참배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겼다.

또 수선사에 모셔진 변암 최익현 선생 순국비와 덕혜옹주 결혼봉축비 등 근현대사의 아픈 흔적이 남아 있는 유적지도 찾아 대마도와 우리 역사와의 관계를 살펴봤다.

이번 탐방을 주관한 이형구 박사는 26년간의 자료 수집과 연구를 바탕으로 대마도 역사탐방 안내사인 '대한민국 부속도서 대마도 역사탐방'을 출간해 참가자 전원에게 증정했다.

탐방 기간에는 현장에서 미처 소개하지 못한 역사적 사실과 자료를 영상으로 제작해 소개했으며, 저녁 만찬 이후 숙소에서 별도의 세미나를 열어 대마도와 관련한 역사적 자료와 의미를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다.

임근홍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장은 “뜻깊은 광복 81주년 역사탐방에 함께해 주신 모든 회원들에



광복 81주년을 맞아 대마도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 역사의 흔적을 직접 확인하는 제25차 대마도 역사 탐방이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2박 3일간 진행됐다.

게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탐방을 통해 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행사에 동행한 유재기 박사도 “매년 수십만 명이 대마도를 찾고 있지만 역사 탐방보다는 관광과 놀이문화 중심으로 방문하는 현상이 안타깝다”며 “우리 역사와 관련된 현장을 직접 찾아 그 의미를 되새기는 탐방이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구 박사는 세미나에서 “이제는 대마도와 관련한

실증적 자료가 충분히 축적돼 있다”며 “역사적 사실을 외면하거나 침묵할 것이 아니라 올바른 역사를 제대로 알고 주변에 그 진실을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제25차 대마도 역사 탐방은 단순한 관광을 넘어 우리 역사와 문화의 흔적을 직접 찾아보고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는 역사교육의 장으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이만호 기자



대산테크·아우름봉사단, 익산시에 장학금 기탁

익산시에 지역 청소년들의 꿈과 성장을 응원하는 따뜻한 나눔이 전달됐다.

익산시는 11일 ‘(유)대산테크’와 ‘익산아우름봉사단’이 시청을 방문해 지역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 36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식에는 최정호 익산시장과 김영관 (유)대산테크 대표, 장석문 익산아우름봉사단장, 임양섭 (사)익산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 등이 참석했으며, 장학금은 (사)익산시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지역 청소년 12명에게 장학증서와 함께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나눔은 지역기업과 봉사단이 뜻을 모아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지역사회에 나눔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익산=이재춘 기자



부안군,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사업 완료

부안군에서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한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안면 삼입식지 산4-6의 1필지(흥산마을) 일원을 대상으로 진행해 총사업량 1.71ha로 모두베기 0.331ha와 솎아베기 1.371ha로 지난 4월 30일부터 7월 28일까지 시행했다.

특히나 산림과 인접한 주택 등 주요 시설 주변에 산불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피 도양의 이격공간과 완충지대를 구축했다.

화재 위험성이 높은 침엽수림 주변에는 이격공간을 뒤 불길의 직접적인 도약을 막고 숲가꾸기를 실시해 완충지대를 조성함으로써 산불 확산 에너지를 차단하는 방어선을 완성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남원 죽향동, 청렴·친절 결의대회 개최



남원시 죽향동 행정복지센터는 11일, 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전 직원과 통장협의회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및 친절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행정복지는 공직자와 마을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소통하는 통장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문화를 확립하고, 주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복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청렴·친절 실천 결의문’을 함께 낭독하며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공정한 직무 수행, 내 가족처럼 따뜻하고 친절한 민원 응대, 부당한 이익 및 청탁 근절, 행정과 주민 간의 진정한 소통과 화합 등을 엄숙히 다짐했다. 이은주 죽향동장은 “주민과 행정이 굳건한 신뢰로 손을 잡은 만큼, 앞으로도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을 바탕으로 주민 모두가 행복한 죽향동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도동동, 취약계층 가구에 에어컨 지원



남원시 도동동 행정복지센터가 지난 7일, 발로 뛰는 ‘찾아가는 복지’ 활동으로 폭염에 취약한 한부모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3가구를 발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후원을 통해 에어컨을 지원하여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최근 도동동은 복지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찾아가는 복지’ 상담을 진행, 이번 사업도 현장 중심의 활동을 통해 거동이 불편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직접 만나 그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해 늘 앞장서 온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이러한 지역의 사연을 공유해, 폭염 취약가구에 에어컨을 지원하게 됐다.

도동동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복지를 실현하는 등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축제 성공 다짐... 2026 진안홍삼축제 자원봉사자 발대식

진안군은 9월 열리는 ‘2026 진안홍삼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군은 11일 진안 문화의집 마이홀에서 ‘2026 진안홍삼축제 자원봉사자 발대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전춘성 진안군수, 김명갑 군의장, 전용태 도의원을 비롯한 군의원, 홍삼축제 추진위원회 관계자, 이재동 (사)진안군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자원봉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자원봉사자들은 축제기간 동안 안내·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며, 관광객들에게 친절하고 쾌적한 축제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전춘성 군수는 “진안홍삼축제는 자원봉사자 한 분 한 분의 땀과 헌신이 모여 완성된다.”며 “여러분의 따뜻한 미소가 진안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감동과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동 (사) 진안군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역시 “진안을 대표하는 축제인 만큼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26 진안홍삼축제’는 9월 17일 낙화놀이 전야제를 시작으로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마이산 북부 일원에서 열린다. 축제 기간에는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비롯해 홍삼을 활용한 특화 콘텐츠 등이 마련돼 관광객들에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임산부·독거노인·아동 대상 공공의료서비스 강화

전북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 추진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중철)이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의료안전망 강화에 나서고 있다.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사업실을 중심으로 노인보건의료센터, 권역호흡기전문질환센터, 어린이병원 등 공공전문진료센터와 장애인구강진료센터, 내분비내사내과, 신경과 호흡기내과, 재활의학과, 소아과 등 여러 진료부서가 공공부문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각 부서는 의료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의료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임산부와 독거노인, 아동 등 건강관리에 세심한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대상으로 질환 조기 발견과 예방 교육, 치료 연계 등 실질적인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내분비내사내과 이경애 교수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임신 준비 및 임신 중 당뇨병 환자 혈당관리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88명을 대상으로 연속혈당측정검사와 혈당관리 교육을 진행했다. 하반기에는 추가 검진과 함께 임신성 당뇨병 관리를 위한 다학제 건강강화를 개최할 예정이다.

신경과 오선영 교수는 전북지역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만성 어지럼증, 다발성 말초신경병증, 경도인지장애’에 걸린 및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66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심층 검진을 실시했으며, 하반기에는 추가 검진과 함께 지역 보건의료인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해 지역사회와 질환 관리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소아과과 양연미 교수는 도내 아동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해 ‘치아우식 조기발견 및 예방관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상반기에는 부안과 정읍지역 어린이집을 찾아 구강검진과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하반기에는 치아우식 고위험군 아동을 대상으로 치과 치료까지 연계해 지원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전북대병원은 이 같은 사업을 통해 각 진료 분야의 전문



성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주민들의 질환 예방과 조기 발견,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지역별·대상별 의료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의료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오상근 기자

광원기계, 김제시 저소득가정에 성금 기탁

김제시는 11일 (유)광원기계(공동대표 정경수, 김영태)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 1,0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김제시 저소득 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유)광원기계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꾸준히 성금을 기탁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매년 이웃사랑을 이어오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희망을 전하고 있다.

정경수 공동대표는 “지역사회에 받은 사랑을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자 임직원들의 마음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유)광원기계의 꾸준한 나눔은 어려운 이웃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며 “매년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시는 광원기계 대표들과 임직원 여러분에 깊이 감사드리며, 소중한 성금은 꼭 필요한 시민들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도태 기자



전은 노조, 청소년 신앙 공간에 300만원 후원

JB금융그룹 전북은행노동조합(위원장 정원호)이 지역 청소년들의 신앙 활동과 휴식을 위한 공간 조성을 위해 후원금을 전달했다.

전북은행노동조합은 11일 전주교구에서 해월리 윤호요셉의 집 에 후원금 3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경수 신부를 비롯해 전북은행노동조합 정원호 위원장과 노조 간부 전원, 전북은행 고현상 경원동 지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후원금은 전북은행노동조합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마련된 지역사랑성금을 통해 조성됐다. 노조는 지역사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연중 봉사과 나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해월리 윤호요셉의 집’은 기존 노후 시설을 철거한 뒤 올해 2월 새롭게 신축됐다. 앞으로 지역 청소년과 젊은이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전북은행노동조합은 신축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활성화, 주변 환경 조성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후원금을 전달했다. /오상근 기자

군산 신평동장, 경로당 찾아 폭염 대비 안전점검

신임 이경화 신평동장이 지난 10일 관내 경로당 9개소를 순회 방문하여 어르신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평동장은 부임 인사와 함께 경로당 이용 및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의견을 경청하고 건의 사항을 직접 청취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 방문에서 수렴한 의견과 건의 사항을 향후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폭염을 대비해 경로당 냉방기기와 시설물을 점검하며,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시원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세심한 현장 행정을 펼쳤다. /군산=김만호 기자

재경 산동향우회, 남원 산동면에 풍기이불 기탁

남원시 산동면 관계지는 재경 산동향우회 이명철 회장이 지난 5일 산동면 행정복지센터에 풍기이불 50채(250만 원 상당)를 기탁하며 고향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이명철 회장은 서울 강북구에서 풀리쳐주를 섬유 전문 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제9회 춘향제 제진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평소 고향 남원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실천해 오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